



지난 29일 오전 나주시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21회 영산강 사랑 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도민들이 수변공원 일원을 걸으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함께 걸으며 건강 챙기고...환경도 보호 '뿌듯'



'제21회 영산강 사랑 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에서 LED TV당첨자가 전용준 광남일보 대표이사·회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 활동 신청하는 참가자



행운의 경품추첨에서 통버블세탁기 당첨자가 윤병태 나주시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중앙전문대학교부스에서 걷기대회 참가자들이 네일아트 받고 있다.



'제21회 영산강 사랑 시·도민 한마음 걷기대회'에 참가한 가족 나들이객.



강기형 G&G 라인 댄스아카데미 밸리댄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체험부스에서 모루키링만들기 체험하는 참가자들.



심미경 한국고장구승승장구팀 공연.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9회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석한 윤병태 나주시장이 시민들에게 나무를 나눠주고 있다.

'제9회 나무 나누어주기' 성황...3000본 배부 나주시, 탄소중립 실천·산불 경각심 안내 활동

전남 나주시와 나주시임업후계자협의회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29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제9회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 광남일보 '제21회 영산강사랑 한마음 걷기대회'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임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병태 시장 등은 이날 시민 1000명에게 대봉·살구·자두나무 묘목 3000그루를 무료로 나눠줬다. 최근 산불이 잇따르는 상황을 고려해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산불 전문진화대는 걷기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과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며 산불 예방 홍보물과 수건, 텀블러 등

600개를 나눠줬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 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국적으로 산불 피해가 확산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도 산불 예방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옥선 나주시임업후계자협의회 대표는 "나무 심기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나주시임업후계자협의회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임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